동학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범위 확대

유성엽 의원, '고부봉기 참여자도 포함'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사진)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1894년 1월에 전라도 고부군에서 발생한 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에도 해당 봉기에 참여한 사람은 현행법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포함되지 않아 그 명예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법에서는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라는 다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894년 9월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에 대하여 법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었다.

유성엽 의원은 "최근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결정됐다. 오랜 기다림이었지만 지금이라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될 거라 기대한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고부봉기 때부터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싱가포르 선텍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내년 아세안 정상 한국에 초대… 새 100년 시작"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한-메콩 정상회의 등 제의 · 신남방정책 추진 1년 성과 설명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내년,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선텍 컨벤션센터 회의장에서 열린 제20차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는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한·아세안의 새로운 3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이 아세안과의 관계 수립 3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점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했다. 또 신남방정책 이행을 가속화 하기 위해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제안했다. 한국은 그동안 2009년·2014년 두 차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국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며 "식민지 시대의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아주 각별한 동지애를 느낀다"고 했다.

이어 "2019년은 아주 뜻깊은 해"라며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다. 한국에게도 아주 중요한 해다.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한·아세안의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아세안의 하나 된 힘으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앞당겨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그간 1년 동안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아세안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강대국 간 경쟁이 격화되고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세안은 서로 도우며 평균 경제성장률 5%의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세안의 무한한 잠재력과 하나 된 힘을 믿는다"며 "지난 19차 회의에서 천명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함께 번영하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표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1년, 아세안 정상들과 직접 만나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까지 나는 아세안의 모든 정상들과 만나 더욱 깊은 신뢰를 쌓고자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노력의 결실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 9월까지 한·아세안 교역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200억 불에 달한다. 상호 방문자도 17% 증가해 8백만 명을 넘었다"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2020년 상호교역액 2000억불, 상호방문객 1500만명의 목표를 향해 아세안과 더욱 가깝게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뉴시스

"댐 사고 위로… 복구에 최선"

문 대통령, 한 · 라오스 정상회담서 협력 방안 논의 중
시술릿 총리 "SK건설 측서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

제20차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 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한·라오스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 사이의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 선텍 컨벤션센터 내 양자회담장에서 시술린 총리와 한·라오스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난 7월 라오스 아타푸 주(州)에서 발생한 댐 사고에 대해 거듭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재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피해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7월 라오스 앗따쁘 주에서는 SK 등 우리기업이 시공 중이던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붕괴 돼 40명이 사망하고, 이재민이 6000여명이 발생했다.

문 대통령은 "아타푸 주에서 발생한 댐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 사고의 원인이 어떻게 조사되든 그와 상관없이 한국은 재건·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술릿 총리는 한국 정부의 따뜻한 위로와 지원이 피해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시술릿 총리는 "한국에서 여러모로 지원해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현재 사고 원인 조사 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SK건설 측에서 여러모로 도와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양국은 한·라오스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라오스는 인도, 차이나 교통의 중심지이고 에너지와 수자원에서 아주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시술릿 총리는 한국 측에 메콩강 유역 복원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한국 측에서 메콩강 유역 복원 사업에 지원해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라며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사업 제안서를 주 라오스 한국 대사관을 통해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문 대통령 "내년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김정은 초청 검토"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내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제안에 "주목되는 제안"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위도도 대통령은 "한국과 북한이 함께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그 의미가 더 살아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2009년 제주도, 2014년 부산에서 각각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0주년과 25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바 있다. 세 번째로 열리는 내년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연말로 예정됐다. /뉴시스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위원 9명 확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4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위원은 학계에서 강재호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유진숙 배재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고, 법조계에서 손창열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시민단체에서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중앙선관위에서는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등 총 9명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20년 4월15일 열리는 21대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뉴시스